『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5
pp.245-264 ISSN : 1229-9618

소식의 폄적과 사풍의 변화*

정태업**

【목 차】

1. 서론
2. 烏臺詩案과 以詩爲詞
3. 統計로 본 貶謫前後詞
4. 黃州時期 詞風의 變化
5. 결론

【초록】

詞의 風格은 蘇軾에 와서 일변한다. 晩唐이래로 이어져 오던 婉約한 사풍이 소식에 와서 豪放하고 淸新한 풍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사풍이 변하게 된 뒤에는 소식의 정치적 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쓴 詩가 문제가 되어 '烏臺詩案'이란 筆禍를 겪게 된 소식은 시를 대신하여 詞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시를 쓰듯 사를 쓴다(以詩爲詞)'는 평가는 여기에서 나왔다. 소식은 당시 文人士大夫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를 통해 貶謫으로 인한 복잡한 감회를 사를 통해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폄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자신의 심경을 豪放하고, 淸麗하고, 超脫한 풍격의 사로 노래했다. 결과적으로 소식의 폄적은 전통의 婉約한 풍격의 사와는 다른 새로운 풍격의 사를 탄생시켰고 이는 다시 당시 문단에 영향을 주어 송대 詞風의 변화를 이끌었다.

【키워드】蘇軾, 貶謫, 以詩爲詞, 烏臺詩案, 豪放, 詞風變化

* 본 논문은 2108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조성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pufs1@bufs.ac.kr)

1. 서론

송대 주류문학이 詞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詩의 역할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唐代의 주류 문학인 詩는 북송 초기에 와서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 도리어 구양수의 시문 혁신문동을 통해 시의 風敎적 의미와 詩言志적 전통은 더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로 집중된 사회적 영향력은 시에 대한 많은 해석을 낳게 했다. 含蓄적이고 隱喩적인 시의 특성은 시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북송시대 黨爭이 격화되면서 新法黨 사람들은 舊法黨 문신들이 쓴 시를 문제 삼아 두고 政爭을 벌이는 文字獄이 발생했다. 烏臺詩案의 연루자인 蘇軾은 자신이 쓴 시 때문에 筆禍를 겪었고 貶謫까지 당하게 된다. 이렇게 시의 사회적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자 문인들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를 쓸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더 이상 시로 자신의 感懷를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시를 쓴다 하더라도 지극히 說理적 이치만을 담거나 생활적 내용을 쓰게 되었다. 이를 두고 명대의 陳子龍은 「王介人詩餘序」에서 “송대 사람들은 시를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시를 지었다. 그들은 시에서 이치만을 말하고 정은 말하지 않았으니, 송나라에는 시가 없었다 하겠다.[1)]”고 혹평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송대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송대 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다른 문학적 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晩唐五代 이후로 문학의 변방에 있던 曲子詞는 송대 초기까지도 주류문학에서 제외된 歌妓들과 서민들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소식은 시로 야기된 文字獄을 겪으면서 자신의 감회와 뜻을 표현할 새로운 문학적 도구로 사를 택했다. 정치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단으로 사만큼 적합한 도구는 없었다. 사가 시를 대체해서 소식의 感懷를 표현했다는 것은 소식사의 풍격 변화에서 잘 나타난다. 당쟁이 격화되기 전 소식의 사와 폄적 이후 사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詩에서 詞로 주류문학이 넘어가게 된 데에는 송대 문인들이 겪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전통적 사풍의 변화는 소식이 겪은 烏臺詩案이 그 轉換點이 되었다. 본 논문은 北宋 前期까지도 완약한 풍격을 이어가던 전통사가 어떤 계기로 변하게 되었는지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오대시안은 소식으로 하여금 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는지 문집 속에 소식 스스로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오대시안 전후 시와 사의 작품수 변화를 통해 소식의 시와 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후 오대시안으로 인한 폄적은 소식의 사풍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 작품들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陳子龍, 「王介人詩餘序」: 宋人不知詩而強作詩. 其為詩也, 言理而不言情. 終宋之世無詩. 王國維, 『人間詞話』, 中華書局, 2009, p.33 再引用.

2. 烏臺詩案과 以詩爲詞

중국역사상 가장 유명한 筆禍사건이 바로 烏臺詩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神宗은 王安石의 新法을 통해 송대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많은 신하들이 반대 했다. 소식도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했고 따라서 왕안석의 신법을 옹호하는 신법당의 입장에서는 소식은 밀어 내야할 대상이었다. 그들은 소식을 제거할 방법을 소식의 시에서 찾았다. 소식이 쓴 시 가운데 조정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골라 그 含意를 묻고 모함했다. 소식이 필화사건에 연루된 개기는 그의 시 「山村五絶」 때문이었다. 그들은 시의 내용 속에 靑苗法을 비판하고 鹽法을 조롱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2] 그런데 소식이 御史臺의 심문을 받으며 이를 수긍하고 만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八月十五日看潮五絶[3]」이라는 시에서 '동해의 바다신이 제왕의 뜻을 안다면 마땅히 바다를 뽕 밭으로 변하게 하리(東海若知明主意, 應敎斥鹵變桑田)'이라는 내용이 神宗을 비웃고 조정의 수리 사업을 비판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서 「戲子由[4]」시의 일부를 끄집어내 신법 자체를 조롱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취조했다. 본래 「戲子由」라는 시는 熙寧4年(1071) 소식이 처음 항주 통판을 맡았을 때 쓴 것으로 이 시는 당시 동생인 소철이 陳州에 學官으로 있으면서 가난으로 고생이 심했는데도 가난에 굴하지 않고 청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위로하는 의미에서 쓴 시였다. 하지만 시 속의 몇 구절이 문제가 되었다. 그 중 "만권의 책을 읽어도 법률 책은 읽지 않으니 임금을 도와 요순의 시대를 만들 재주가 없음을 앎이라.(读书萬卷不读律, 致君尧舜知無术)"는 구절이 문제가 되었다. 본래 뜻은 법보다는 덕치로 요순시대와 같이 태평성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법당의 政敵들은 '법률

---

2) 이 시에서 청묘법을 비판한 것과 지목된 부분은 제 3수로 "지팡이 짚고 도시락 싸서 총총히 나가노니, 푸른 돈이 휙 지나가 순식간에 없어지네, 얻은 것은 아이들의 말소리가 좋아진 것, 일년 중 절반을 성 안에서 지낸 덕분이라네(杖藜裹飯去忽忽, 過眼靑錢轉手空. 贏得兒童語音好, 一年强半在城中.)"라는 구절이었다. 청묘법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低利로 靑苗錢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어서 갚게 하는 제도였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청묘전을 빌리려 해도 빌리지 못하니 농사를 지어야할 농촌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일 년에 반을 관아가 있는 境內에서 방황하니 좋아진 것이라고는 아이들 말투뿐이다'는 의미이다. 또 염법을 비판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제 4수로 "일흔 살 먹은 늙은이도 스스로 허리에 낫을 차고, 봄 산에서 어렵게 구한 죽순과 고사리 달게 먹는다. 어찌 공자가 소악을 듣고 고기 맛을 잊은 것 이 노인이 알겠는가? 근래 석 달 동안 소금 없이 끼니를 때웠다 하네(老翁七十自腰鎌, 慚愧春山筍蕨甛. 豈是聞詔解忘味, 邇來三月食無鹽)"라는 내용이었다. 鹽法으로 인해 소금이 비싸 3개월이나 소금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시골노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第2冊), 中華書局, p.437. (이하 『蘇軾詩集』로 약칭)

3) 定知玉兔十分圓, 已作霜風九月寒. 寄語重門休上鑰, 夜潮留向月中看. 萬人鼓噪懾吳儂, 猶似浮江老阿童. 欲識潮頭高幾許, 越山渾在浪花中. 江邊身世兩悠悠, 久與滄波共白頭. 造物亦知人易老, 故教江水更西流. 吳兒生長狎濤淵, 冒利輕生不自憐. 東海若知明主意, 應教斥鹵變桑田. 江神河伯兩醯雞, 海若東來氣吐霓. 安得夫差水犀手, 三千強弩射潮低. 『蘇軾詩集』(第2冊), p.484.

4) 「戲子由」: 宛丘先生長如丘, 宛丘學舍小如舟. 常時低頭誦經史, 忽然欠伸屋打頭. 斜風吹帷水注面, 先生不愧旁人羞. 任從飽死笑方朔, 肯為雨立求秦優. 眼前勃谿何足道, 處置六鑿須天游. 讀書萬卷不讀律, 致君堯舜知無術. 勸農冠蓋鬧如雲, 送老虀鹽甘似蜜. 門前萬事不掛眼, 頭雖長低氣不屈. 餘杭別駕無功勞, 畫堂五尺容旗旄. 重樓跨空雨聲遠, 屋多人少風騷騷. 平生所慚今不恥, 坐對疲氓更鞭箠. 道逢陽虎呼與言, 心知其非口諾唯. 居高志下真何益, 氣節消縮今無幾. 文章小伎安足程, 先生別駕舊齊名. 如今衰老俱無用, 付與時人分輕重. 『蘇軾詩集』(第2冊), p.324.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왕안석이 만든 신법을 보지 않겠다는 말을 비꼬아서 한 것이라 몰아붙였다. 또 시 속에 "평생 부끄럽게 생각하던 것 지금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니, 가난한 백성들을 채찍과 곤장으로 겁박하네. 길에서 양호[5]를 만나면 불러 더불어 말하고, 속으로는 잘못된 것 알면서 입으로는 옳다고 하네(平生所慚今不耻, 坐对疲氓更鞭棰. 道逢陽虎呼與言, 心知其非口諾唯.)" 라는 구절을 신종의 정책과 왕안석의 신법이 백성들을 더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신법당 신하들이 탐관오리들과 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 쓴 것이라며 소식을 음해했다. 사실 이 구절은 당시 파렴치한 관리들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파인 신법당에서 소식을 끝없이 몰아붙이자 神宗도 소식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소식은 오대시안 때문에 죽을 뻔 했다가 백일 만에 가까스로 풀려나 황주로 폄적을 가게 되었다. 이런 필화사건의 모든 원인은 바로 '詩'에 있었고 소식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烏臺詩案'이라는 전대미문의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소식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고 이후 절대 시를 절대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특히 폄적을 당한 초기에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다. 소식의 황주 폄적시기 지인들에게 보낸 글들을 보면 그의 詩에 대한 생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 언젠가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시와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하여 점차 글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 가운데 별로 말한 것도 없는데 일 꾸미기 좋아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내어 무궁무진한 일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6]

>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음을 스스로 상당히 엄격히 지키고 있는바 만약 다시 글을 쓰면 (스스로 정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이후로도 여전히 다시 이러저러한 말이 많을 것입니다.[7]

> 가르침을 따라 시를 지었으나 재능과 생각이 미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하여 (시를) 한 자도 쓰지 않은 것이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8]

---

5) 양호는 공자와 같은 시대 노나라 계씨 가문의 가신이었다. 공자 당시 권력을 전횡하여 나라를 어지럽혀 공자가 회피했던 인물이었다. 양호가 길에서 공자를 만나 입조를 건의했지만 공자는 양호가 불의한 사람이라 예의상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본문을 보면『論語』「楊貨編」에 "노나라의 실권자 양화가 선생님께 회견을 요청했는데 선생님께서 가지 않으시니 양화는 선생님께 돼지를 선물로 보냈다.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양화가 없는 틈을 타서 답례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길에서 마주쳤다. 양화가 말했다. 잘 만났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도 썩히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인덕에 맞는 것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오. 사실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서도 나갈 기회를 거듭 놓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오. 날이가고 달이 가서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저도 관직에 나가겠습니다.(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 來 予與爾言 曰,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曰 不可. 好從事而亟失時 可謂知乎? 曰 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 諾, 吾將仕矣.) "는 내용이 있다. 신법당에서는 이 구절을 자신들이 나쁜 관리들과 어울린다고 해석했다.

6) 「與陳朝請二首」之二: 某自竄逐以來, 不復作詩與文字. 所諭四望起廢, 固宿志所願, 但多難畏人, 遂不敢爾. 其中雖無所云, 而好事者巧以醞釀, 便生出無窮事也.『蘇軾文集』(第4冊), p.1709.

7) 「答秦太虛」之四: 但得罪以來, 不復作文字, 自持頗嚴, 若復一作, 則決壞藩牆, 今後仍復袞袞多言矣.『蘇軾文集』(第4冊), p.1536.

스스로 죄를 지은 후 다시 시문을 짓지 않음은 공께서도 아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붓과 벼루도 황폐해져서 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호사가들은 놔두지 않으려 하여, 내가 입만 열면 죄를 짓게 되니, (글을) 아니 씀만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지키고 있으니 공께서 헤아려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9]

심히 곤고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입을 열고 붓을 들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토를 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 보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낫고 붓을 들지 않음이 어쩌면 모면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비록 이전에 쓴 것에 의탁해서 말한다 해도 호사가들이 어찌 전후를 논하겠습니까. 그런즉 다음에 위급한 화를 벗어나 사람들이 그다지 증오하지 않을 때 공을 위해 글을 쓰겠습니다.[10]

당시 소식이 얼마나 시문을 쓰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지를 침작할 수 있다. 소식은 설사 간혹 주위 친한 사람들에게 詩文을 쓴다 해도 소식은 주위에 절대 보이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答李端叔書」에서 "죄를 지은 후, 글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서신이 글도 아니지만 붓 가는대로 쓴 서신 내용이라도 부지불식간에 어느 정도 분량이 쌓였으니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제 뜻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11]" 라고 시문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또 「與錢濟明十六首」에서도 "영남의 집집마다 술을 빚는데, 근일 계화주 만드는 법을 배워, 왕진경집 벽향에 못지않은 술을 빚으니, 폄적지에서 하나의 즐길 일입니다. 아뢸 바가 있어서 직접 몇 자 써서 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12]"라고 쓰고 있다. 즉 자신이 직접 술을 담아 마시며 즐기는 것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큰 화를 불러올까봐 재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밖에 「與朱康叔二十首」에서도 "찬탄하기에는 부족하여 몇 글자 써서 붙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바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어서입니다.[13]"라고 쓰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소식은 폄적이후 시문을 쓰지 않으려 했고 작은 서간문이라도 쓸 때는 각별히 주의를 했다. 비단 소식 뿐만 아니라 당시 비슷한 처지를 당한 黃庭堅도 소식과 같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도 폄적을 당한 이후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사람들을 피해 혼자 머무르며 사람들이나 일과 접촉을 끊었으니 따라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晉城에도 글을 써 보낸 적이 없습니다.[14]"라고

---

8) 「與上官彝」之三,:見教作詩, 既才思拙陋, 又多難畏人, 不作一字者, 已三年矣. 『蘇軾文集』(第4冊), p.1713.
9) 「與沈睿達」之二: 某自得罪, 不復作詩文, 公所知也. 不惟筆硯荒廢, 實以多難畏人, 雖知無所寄意, 然好事者不肯見置, 開口得罪, 不如且已, 不惟自守如此, 亦願公已之. 『蘇軾文集』(第4冊), p.1745.
10) 「黃州與人」之二: 但困躓之甚, 出口落筆, 為見憎者所箋注. 兒子自京師歸, 言之詳矣, 意謂不如牢閉口,莫把筆, 庶幾免矣. 雖托雲向前所作, 好事者豈論前前後. 即異日稍出災厄, 不甚為人所憎, 當為公作耳. 『蘇軾文集』(第5冊), p.1846.
11) 「答李端叔書」: 自得罪後, 不敢作文字. 此書雖非文, 然信筆書意, 不覺累幅, 亦不須示人. 必喻此意. 『蘇軾文集』, 中華書局, p.1433.
12) 「與錢濟明十六首」之五: 嶺南家家釀酒, 近得一桂香酒法, 釀成不減王晋卿家碧香, 亦谪居一喜事也. 有一頌, 親作小字錄呈. 勿示人,千萬, 千萬! 『蘇軾文集』, p.1551.
13) 「與朱康叔二十首」(十六): 嗟歎不足, 故書以奉寄, 然幸勿示人, 恐有嫌者. 『蘇軾文集』, p.1791.
14) 「答洪駒父書」: 閒居絕不與人事相接, 故不能作書, 雖晉城亦未曾作書也.

했고 “병으로 시를 쓰지 못한 것이 이미 십년이나 되었다(余病不能作詩已十年矣.)”고 했다. 또 “이 늙은이는 게으르고 노쇠해서 수년 동안 시를 짓지 않아서 이미 그 율격도 잊어버렸다.[15]”는 내용들은 모두 시문을 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친구와의 서신에서도 “헤어지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스스로 죄과를 다시 씻기지 못한다 생각되고, 다른 사람이 보고 괴물로 여길까 걱정되어, 그런고로 비록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이 불초자를 잊기를 바라서, 글로 서로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16]” “따라서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나 오랜 친구에게만 서신 왕래를 하고, 또 죄과가 더 윤색되어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하여 글을 쓰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17]” 또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만 서신을 보냈고 폄적지에서 오점을 남기는 혐의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일찍이 서신으로 안부를 물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18]”라고 하고 있다. 당시 문인들이 얼마나 시문창작에 조심스러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시를 쓰지 않는 대신에 사의 창작은 점차 늘어났다. 소식의 폄적시기 사를 많이 쓴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王兆鵬은 “소식의 詩 2623수 가운데 編年詩가 2352수이고 황주에 있을 때 시가 170수로 전체 편년시의 7%를 차지하고 있다, 東坡의 현존 사는 348수인데 그 가운데 편년사가 241수이고 황주시기 창작한 사가 64수로 편년사 중 26%를 차지하며 전체 소식 창작사의 18%를 차지한다.”[19]고 분석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소식의 시기별 시와 사에 대한 창작비중은 莫礪鋒의 「從蘇詞蘇詩之異同看蘇軾‘以詩爲詞’」라는 논문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통계에 따르면 소식은 사천 땅을 떠나 汴京으로 온 嘉祐4년(1059)부터 항주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나는 熙寧5년(1072)까지 약 14년 동안 거의 사를 짓지 않았다. 이 시기 지은 사는 모두 14수에 불과하다. 반대로 같은 시기 창작된 시는 무려 383수나 지었다. 그러나 이후 杭州知州를 맡은 지 2년째 되던 熙寧6년(1073)에는 10수의 사를 짓고 熙寧 7년(1074)에는 46수의 사를 지어 사 창작 비중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詩 창작 역시 줄어들지는 않아서 熙寧5년(1072)에 105수의 시를, 熙寧6년(1073)에 133수의 시를, 熙寧7년(1074)에 96수의 시를 짓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시를 창작했다. 소식은 元豊2년(1079) ‘오대시안’으로 옥에 갇히기 전까지도 96수의 시를 지었다. 그러나 ‘오대시안’으로 고초를 겪고 폄적을 당하여 황주로 유배되는 元豊3년(1080)에 쓴 시는 57수로 줄어들고 다음해 元豊4년(1081)에는 47수, 元豊5년(1082)에는 39수, 元豊6년(1083)에는 37수로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가 황주에 폄적되어 있던 4년 동안 쓴 시는 이후 그가 말년에 儋州에 유배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생을 통해 가장 적은 양의 시를 쓴 것이다. 반대로 황주 폄적시기 사의 창작은 元豊3년 16수, 元豊4년 19수, 元豊5년 29수 元豊6년 10수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전체

15) 「再次韻杨明叔序」: 庭堅老懶衰惰, 多年不作詩, 已忘其體律. 『山谷內集詩注』 卷12

16) 「與王瀘州書」: 別來雖累月, 自以罪戾, 不復可湔祓, 所過人視之, 唯恐為渠作祟, 故雖平居親愛, 能忘其不肖者, 亦不敢以書遇. 『山谷集·別詩』 卷15

17) 故非至親至舊可以通書, 而又不以罪譴點染為嫌者, 未嘗敢修牋記. 『山谷集·別詩』 卷16

18) 故非至親至舊可以致手書, 不以謫籍點汙為嫌者, 未嘗敢通音問也. 『山谷集·別詩』 卷16

19) 根据统计, 东坡现存诗歌2623首, 其中编年诗2352首, 黄间的诗歌为170首, 占编年诗的7% 东坡现存词作为348首, 其中编年词241首, 而居黄间的词作64首, 占编年词的26%, 占词作总数的18%. 「蘇軾貶居黃州期間詞多詩少探因」, 『湖北大學學報』, 1996,

시와 사의 창작 비중을 두고 볼 때 황주 폄적시기 사의 창작 비중은 엄청나다. 즉 당시 소동파는 의도적으로 시를 쓰지 않고 사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莫礪鋒 교수님은 “여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 소식이 겪게 된 ‘오대시안’은 원래 시 때문에 조정에 미움을 사게 된 것으로 정리상 말하자면 그가 출옥한 후 마땅히 최대한 시를 적게 쓰는 것이 맞다.”고 소식이 시를 쓰지 않은 원인이 ‘오대시안’ 임을 밝히고 있다. 동시이 이 시기에 사를 많이 짓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가 당시 사람들의 눈에 단지 회포를 푸는 유흥적 도구이지 사가 어떤 정치적 중대한 함의를 담을 수 없었으므로 전문적으로 소식의 글에서 흠을 찾아내는 御使들 조차도 소식의 사 작품 속에서 죄증을 찾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남송 사람들이 편찬한 『오대시안』이라는 책에는 관련 자료가 잘 수록되어 있는데 소식의 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찌되었건 소식은 항주, 밀주, 서주에 머무르는 동안 지은 사가 상당히 많다.[20]”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상 蘇軾文集에서 스스로 밝힌 시를 쓰지 않은 이유와 폄적시기 소식의 시는 감소하고 사는 증가하는 상반적 증감현상을 볼 때 북송시대 政爭과 폄적이 詞가 詩를 대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統計로 본 貶謫前後詞

북송시기 폄적을 당한 詞人들만을 뽑아도 71명이나 된다.[21] 그 중 사풍의 변화를 주도한 蘇軾은 폄적기간이 10년이 되며 소문사학사의 한 사람인 黃庭堅은 폄적기간이 8년이 된다. 이런 문인들의 오랜 폄적은 그들의 사고와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바뀐 인생관으로 쓴 문학 작품들은 또 다른 풍격을 이루었다. 소식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폄적 前과 後의 사풍을 비교해 보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소식은 熙寧4년(1071) 신법을 반대하여 신법파와의 대립이 격화되자 항주지주로 자청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일종의 左遷이었다. 이후 항주에서 密州, 徐州 등 계속 좌천되어 외지를 떠돌게 되는데 이는 폄적이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소식의 사는 항주 이전과 항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작품의 수량과 풍격을 비교하면 항주에서 밀주로 부임해 가기 전 지은 사의 숫자는 50여수 정도 되고 이때의 사는 모두 婉約하고 淸新하다. 소식의 폄적 이전의 사를 연도별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 我认为这是由于词在當时人眼里只是遣情娱兴的小道, 它不会包含什麽政治内涵或重大意义, 所以即使是专事对苏轼文字吹毛求疵的御史们也没有到苏轼的词作中去找什么罪证, 以致于在南宋人所编的收录材料相當齐全的『乌台诗案』一书中没有涉及苏词,尽管苏轼在杭州、密州、徐州任间作词甚多.「從蘇詞蘇詩之異同看蘇軾“以詩為詞”」,『中國文化研究』, 2002, p.8.

21) 夏向軍은 『北宋貶滴词研究』라는 논문에서 『宋史』, 『续资治通鉴』, 『续资治通鉴长编』, 『全宋词』, 『宋词纪事』 및 기타 자료들의 조사를 통해 북송시기 한 수의 작품이라도 詞를 쓴 詞人들 중 폄적을 당한 문인들은 모두 71명이고 각 인물과 그 폄적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蘭州大學碩士論文, pp.10-18, 2010.)

年號	年度	年齡	作品名	風格	作品數
治平元年	1064	29	「华清引」(平时十月幸莲汤)	婉約	1
熙寧1年	1069	34	「一斛珠」(洛城春晚)	婉約	1
熙寧4年	1071	36	「南歌子」(绀绾雙蟠髻) 又(琥珀装腰佩).	婉約	2
熙寧5年	1072	37	「浪淘沙」(昨日出東城), 「浣溪沙」(徐邈能中酒聖贤), 「雙荷葉」(雙溪月), 「荷花媚」(霞苞露荷碧).	婉約 清麗	4
熙寧6년	1073	38	「行香子」(一葉舟轻), 「祝英台近」(挂轻帆), 「瑞鹧鸪」(城头月落尚啼乌), 「江城子」(凤凰山下雨初晴), 「菩萨蠻」(绣簾高卷倾城出), 「瑞鹧鸪」(碧山影裏小红旗), 「临江仙」(四大从来都遍满), 「江城子」(玉人家在凤凰山)	婉約 清麗	8
熙寧7년	1074	39	「行香子」(携手江村), 「减字木兰花」(晓来风细), 「昭君怨」(谁作桓伊三弄), 「卜算子」(蜀客到江南), 「蝶恋花」(雨过春容清更丽), 「占春芳」(红杏了), 「醉落魄」(轻雲微月), 「少年游」(去年相送), 「减字木兰花」(雙龙对起), 「鹊桥仙」(缑山仙子), 「虞美人」(湖山信是东南美), 「诉衷情」(钱塘风景古来奇), 「菩萨蠻」(玉童西迓浮丘伯), 「减字木兰花」(雲鬟倾倒), 「菩萨蠻」(娟娟缺月西南落), 「江城子」(翠蛾羞黛怯人看), 「菩萨蠻」(秋风湖上萧萧雨), 「清平乐」(清淮浊汴), 「南乡子」(回首乱山横), 「劝金船」(無情流水多情客), 「南乡子」(东武望余杭), 「浣溪沙」(缥缈危楼紫翠间),又(白雪清词出坐间), 「南乡子」 (裙带石榴红),又(旌旆满江湖), 「定风波」(千古风流阮步兵), 「减字木兰花」(惟熊佳梦), 「南乡子」(不到谢公台), 「菩萨蠻」(天怜豪俊腰金晚), 「阮郎归」(一年三度过苏台), 「醉落魄」(苍颜华发), 「菩萨蠻」(玉笙不受朱唇暖), 「采桑子」(多情多感仍多病), 「减字木兰花」(银筝旋品), 「醉落魄」(分携如昨), 「诉衷情」(小莲初上琵琶弦), 「更漏子」(水涵空), 「浣溪沙」(长记呜琴子贱堂), 「永遇乐」(长忆别时).	婉約 清麗	39

도표에서 보듯 소식은 처음에는 사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소식이 본격적으로 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熙寧6년 항주에서 있으면서였다. 熙寧6년 그는 8수의 사를 지었다. 그가 처음으로 강남지방으로 부임하여 당시 강남에서 유행하던 사를 접하면서 조금씩 사를 창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거는 소식이 당시 80여세로 詞壇의 맹주인 張先을 만나[22] 「江城子」[23] 사를 창작한 것을 보면 이때 사에 대해 눈을 뜬 것을 알 수 있다. 사풍에 있어서나 내용면에서 이 당시 소식의 사는 장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통적인 婉約한 사풍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蝶戀花」(雨過春容清更麗) 같은 작품은 고향에

22) 『墨莊漫錄』에 소식과 장선이 만나서 사를 짓게 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东坡在杭州, 一日游西湖, 见湖心有一彩舟渐近, 中有一女风韵娴雅, 方鼓筝, 二客竞目送之. 一曲未终, 人翩然不见. 公因作此长短句戏之. 唐圭璋等, 『唐宋词鉴赏辞典』, 上海辞书出版社, 1988, p.686.

23) 「江城子」(湖上與张先同赋, 时闻弹筝): 鳳凰山下雨初晴, 水風清, 晚霞明. 一朵芙蕖, 開過尚盈盈. 何處飛來雙白鷺, 如有意, 慕娉婷. 忽聞江上弄哀筝, 苦含情, 遣誰聽！煙斂雲收, 依約是湘靈. 欲待曲終尋問取, 人不見, 數峰青.

서 온 편지를 받고 객지를 떠돌며 관직 생활하는 자신의 서글픈 신세를 노래한 것이지만 내용과 풍격 면에서 마치 화간집이나 장선의 한 작품을 보는듯한 느낌이 든다. 잔잔한 애상이 느껴지는 완약한 풍격의 사로 소식의 폄적 이후 사에서 느껴지는 호방함이나 청신한 느낌은 찾아볼 수 없다.[24] 반대로 密州부터 黃州 시기까지의 사는 모두 130여수에 이르고 이때 창작된 사들은 기존의 婉約하고 淸麗한 풍격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曠達하고 豪放하며 또 超越적인 풍격의 작품들이 많다. 이 가운데 전통적 사풍을 벗어나는 새로운 풍격의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年號	年度	年齡	作品名	風格	創作背景
熙寧7년	1074	39	沁园春 (孤馆燈青)	曠達	좌천에 대한 불만
熙寧8년	1075	40	江城子 (十年生死两茫茫)	沈鬱	죽은 아내에 대한 哀悼
熙寧8년	1075	40	江城子 (老夫聊发少年狂)	豪放	사냥하며 애국심 발동
熙寧8년	1075	40	减字木兰花 (贤哉令尹)	飄逸	관직생활에 대한 회의
熙寧8년	1075	40	减字木兰花 (春光亭下)	飄逸	관직생활과 인생무상
熙寧9년	1076	41	蝶恋花 (簾外东风交雨霰)	沈鬱	불공평한 사회 현실 풍자
熙寧9년	1076	41	水调歌头 (明月幾时有)	飄逸	중추절 동생에 대한 그리움
熙寧10년	1077	42	水调歌头 (安石在东海)	超脫	전원생활을 통한 초탈
元豊원년	1078	43	千秋岁 (浅霜侵绿)	淸淡	徐州 중양절 인생무상을 소회
元豊원년	1078	43	永遇乐 (明月如霜)	雄渾	徐州 연자루에 오른 기상을
元豊원년	1078	43	阳关曲 (受降城下紫髯郎)	豪放	후방에서 있는 張繼愿 장군에 대한 안타까운 소회
元豊5년	1082	47	江城子 (梦中了了醉中醒)	淸新	도연명의 전원생활 흠모
元豊5년	1082	47	定风波 (莫聽穿林打葉声)	達觀	갑작스런 소나기를 맞고서
元豊5년	1082	47	哨遍 (为米折腰)	超然	도연명 귀거래사를 사로 씀
元豊5년	1082	47	念奴娇 (大江东去)	豪放	적벽에서 영웅들을 회고
元豊5년	1082	47	渔家傲 (临水纵横回晚鞚)	超越	초겨울 인생무상을 노래
元豊5년	1082	47	念奴娇 (憑高眺远)	超脫	중추절 속세를 초탈하고파
元豊5년	1082	47	满庭芳 (蜗角虚名)	達觀	허무한 인생에 대한 감회
元豊6년	1083	48	臨江仙 (夜飲東坡醒復醉)	超越	동파에서 밤늦게 귀가하며
元豊6년	1083	48	十拍子 (白酒新開九醞)	超脫	황주의 초연한 삶을 노래
元豊6년	1083	48	水调歌头 (落日繡簾捲)	豪放	쾌재정에서 바람을 맞으며 느낀 호연지기
元豊7년	1084	49	無愁可解 (光景百年)	超脫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여 씀
元豊7년	1084	49	滿庭芳 (歸去來兮)	超然	이중랑의 송별에 화답하며

24) 소식의 편년사를 보면 밀주로 좌천되어 가기 이전까지의 50여수의 사 가운데 전통적 사풍을 벗어나는 작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조금 다른 풍격이 느껴지는 작품으로는 「醉落魄」(輕雲微月)에서 인생에 대해 懷疑적 感賞이나 「菩薩蠻」(天憐豪俊腰金晚)에서 황제의 은총을 입지 못한 불우한 처지를 표현한 정도다. 대부분 전통적인 婉約하고 淸麗한 사풍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선과 전통적 사풍이 그대로 소식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작품의 풍격이 단언해서 뭐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위 표에서 보이는 작품들도 분석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대 詞들과 다른 풍격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항주시기까지의 작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청려한 풍격의 기존 사들과 비슷한 작품들도 있지만 豪放曠達하고 飄逸超脫한 풍격의 작품들은 확실히 소식이 황주로 폄적되어 갔을 때 많이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대시안이라는 문자옥으로 폄적을 당하고 이 폄적이 소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의 창작을 유도했다고 보여진다. 사실 오대시안 이전에 소식이 중앙에서 항주로 간 것도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한 것에 대한 일종의 좌천이었다. 그리고 熙寧7년 소식은 다시 항주에서 밀주로 서주로 좌천 되었다. 이때부터 소식은 이런 억울하고 불편한 자신의 심정을 사라는 도구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熙寧 7년에 소식은 46수나 되는 많은 사를 창작했는데 이 시기 작품을 보면 기존의 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격을 느낄 수 있다. 熙寧7년(1074) 소식이 밀주지사로 부임해 가던 중 쓴 「沁園春」을 보면 그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잘 살필 수 있다.

「沁園春」
— 赴密州早行馬上寄子由 아침 일찍 밀주로 부임해 가며 말 위에서 자유에게

孤館燈靑,	외로운 객사에 등잔불은 푸르고
野店鷄號,	들판의 여관에서 닭 우는 소리 들릴 제
旅枕夢殘.	나그네의 베개에서 꿈길이 끊겼다네.
漸月華收練,	때마침 달님은 흰 명주를 거두고
晨霜耿耿,	새벽녘의 서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雲山擠錦,	구름 덮인 산에 태양이 수 비단을 펼치는데
朝露溥溥.	영롱한 아침 이슬 방울방울 맺힌다네.
世路無窮,	세상 길은 끝이 없고
勞生有限,	고달픈 인생은 유한한데
似此區區長鮮歡.	이처럼 구차하고 언제나 기쁨은 적네.
微吟罷,	나직이 읊조린 뒤
憑征鞍無語,	말없이 안장에 기대니
往事千端.	수많은 지난 일이 뇌리를 스쳐 가네.

當時共客長安.	그때는 우리 함께 서울 나그네
似二陸初來俱少年.	서울로 갓 올라온 젊은 시절 육씨 형제 같았지
有筆頭千字,	붓을 들면 단숨에 천 자를 쓰고
胸中萬卷,	가슴 속엔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었으니
致君堯舜,	임금님을 보필하여 요순으로 만드는 것
此事何難.	이 일이 어찌 어려울 게 있었으리?
用舍由時,	쓰이느냐 마느냐는 시절에 달려있고
行藏在我,	나가고 물러남은 내 마음에 달렸으니
袖手何妨閑處看.	팔짱 끼고 한가로이 바라본들 어떠리?
身長健,	몸이나 늘 건강하여
但優游卒歲,	느긋하게 지내면서

且斗尊前. 술자리나 다투어 찾아다니세.[25]

항주에서 밀주(山東 諸城)으로 임지가 바뀌어 떠나는 도중에 동생 소철을 생각하며 지은 사다. 당시 소철은 산동성 제남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착잡한 심회를 읊었다. 사를 읽고 있으면 소식의 조정에서 밀려난데 대한 섭섭함과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불만들이 보인다. “세상 길은 끝이 없고, 고달픈 인생은 유한한데, 이처럼 구차하고 언제나 기쁨은 적네.(世路無窮, 勞生有限,似此區區長鮮歡.)”라고 현실에 대한 푸념과 자신의 처지를 구차하다고 자조적으로 묘사하는 모습들은 소식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 황제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여 쓰이지 못함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느껴진다. “쓰이느냐 마느냐는 시절에 달려있고, 나가고 물러남은 내 마음에 달렸으니, 팔짱 끼고 한가로이 바라본들 어떠리?(用舍由時, 行藏在我, 袖手何妨閑處看.)” 라는 구절에서 끝 구절에 자신이 쓰임을 받을지 어떨지 팔짱끼고 옆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의 모습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 그만큼 표현들이 매우 직접적이고 감정이 표현이 솔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편의 내용은 오대시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戲子由」의 내용과도 비슷하다. “만권의 책을 읽어도 법률 책은 읽지 않으니 임금을 도와 요순의 시대를 만들 재주가 없음을 앎이라.(讀書萬卷不讀律, 致君堯舜知無術)” 는 오대시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절과 「沁園春」의 “가슴 속엔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었으니, 임금님을 보필하여 요순으로 만드는 것(胸中萬卷, 致君堯舜)” 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모두 쓰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섭섭함이 깔려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풍격이 소식의 호방하고 표일한 느낌이 없고 표현이 직접적이고 원망이 가득하다. 이에 元好問은 『東坡樂府集選引』에서 “‘野店鷄號’ 작품은 극히 義理를 해치고 있으니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겠다. 세간 사람들은 소동파가 지었다하고 소설가들은 또 신종이 이 사를 듣고는 마음이 불편하여 동파를 황주로 폄적 보냈으며 아울러 ‘소식은 시골에서 팔짱끼고 쉬면서 내가 왕안석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라’고 했다.”[26]며 소식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만큼 소식 전체 사풍에서 벗어나는 작품이다. 그러나 소식의 시가집 모두에 이 작품은 실려 있어 소식의 작품임이 틀림없다. 만약 이 작품이 시로 쓰여 졌다면 오대시안 사건 때 소식은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오대시안」으로 소식이 심문을 받을 때 그의 詞는 한 작품도 문제시 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위정자들이 사를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주요 문학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흥과 오락의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熙寧8년(1075) 밀주시기의 「江城子」사를 보면 소식사의 사풍이 또 변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江城子」
— 密州出獵 밀주에서 사냥을 나가서

老夫聊發少年狂, 나 비록 늙었지만 젊은 열정이 발동하여

25) 본 논문의 사 번역은 류종목 역해, 『蘇東坡詞』(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를 참고하였다.
26) ‘野店鸡號’一篇, 極害义理, 不知谁所作, 世人误为东坡, 而小说家又以神宗之言实之, 云神宗闻此词不能平, 及贬坡黄州, 且言教苏某闲处袖手, 看联與王安石治天下. (後略). 元好问『东坡乐府集选引』

左牽黃,	왼손에는 누런 사냥개를 끌고
右擎蒼.	오른손에는 매를 들었다.
錦帽貂裘,	비단무늬 모자에 담비 갑옷
千騎卷平岡.	천명의 기마병이 산을 둘러쌌다.
為報傾城隨太守,	태수를 따라온 성 사람들에게 보답코자
親射虎,	직접 호랑이를 쏘아서
看孫郎.	손권의 기개를 보여주리라.
酒酣胸膽尚開張,	비록 술 취했지만 가슴속 포부는 여전히 크니
鬢微霜,	귀밑머리에 서리 내린들
又何妨,	또 어떠하리,
持節雲中,	부절을 가지고 운중 땅으로 갈
何日遣馮唐?	풍당을 파견할 날은 언제일까?
會挽雕弓如盈月,	만월처럼 활시위를 힘껏 당겨
西北望,	서북쪽을 바라보며
射天狼.	천랑성을 쏘리라.

이 사는 熙寧8년(1075) 10월 소식이 밀주에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호방한 풍격을 사에 접목시킨 첫 작품으로 보인다. 상편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 갖춘 사냥개와 매, 갑옷, 수많은 병사 등을 통해 강건한 모습을 묘사했다. 아울러 직접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겠다는 의지를 통해 활달하고 강인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편에서는 馮唐의 典故를 빗대어 자신의 억울함과 조정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편에 "부절을 가지고 운중 땅으로 갈 풍당을 파견할 날은 언제일까?(持節雲中, 何日遣馮唐)"라고 한 표현은 漢나라 文帝 때 雲中太守 魏尙이 匈奴와의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도 조그만 과실로 면직을 당했는데 풍당이라는 신하가 조정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간하여 文帝가 위상의 죄를 사면하고 운중태수로 복직시킨 것을 말한다. 소식은 이 고사를 빗대어 조정이 다시 자신을 신임해주고 그의 우국충정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항주시기 장선의 영향을 받아 짓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풍격을 담고 있다. 마치 신기질의 사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소식 자신도 이 사에 당시 유행하던 유영의 사풍과 다른 새로운 자신의 풍격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흡족해 했다. 소식은 그의 친구 선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최근 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소, 비록 유영의 풍취는 없지만 또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소, 하하. 며칠 전 교외로 사냥을 갔는데 상당히 수확이 많았소. 사를 한 수 지어 동주 장사에게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피리를 불고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었는데 상당히 장관이었소.[27]"라며 자신이 새로운 풍격의 사를 쓴 것에 대해 흡족해하고 있다. 소식은 張先과 柳永류의 전통적 사풍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과 풍격의 사를 짓기 위해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를 두고 류종목는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법파로 인하여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된 현실

27) 「與鮮于子駿三首(之二)」: "近卻頗作小詞, 雖無柳七郎風味, 亦自是一家. 呵呵! 數日前, 獵於郊外, 所獲頗多. 作得一闋, 令東州壯士抵掌頓足而歌之, 吹笛擊鼓以為節, 頗壯觀也. "『蘇軾文集』, p.1560.

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28]"고 평했다.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자신의 처지와 가슴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거침없이 토로한 작품이다. 소식의 새로운 풍격의 사 창작은 밀주기간 계속되었다. 인구에 회자하는 소식의 가장 대표작「水調歌頭[29]」도 바로 熙寧9년(1075) 密州知州로 있을 때 지어졌다. 이 사에 대해 胡寅는 "사는 동파에 이르러 단번에 여인의 향내를 씻어버리고, 완곡함의 굴레를 뛰어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크게 노래하여, 호연지기를 가슴에 품고, 속세를 초탈하게 했다. 그래서 화간류의 사를 아래로 내리고, 유영의 사를 비천하게 만들었다.[30]"며 새로운 사풍에 대해 극찬했다. 胡寅의 말대로 前代의 사풍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소식만의 曠達한 풍격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실로 그 경지가 광대하고 심오하며 철리적 정취가 풍부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식이 이렇게 새로운 詞를 창작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밀려나 杭州로, 密州로, 徐州로 좌천되어 원대한 꿈과 재능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좌절과 그 억울한 감정을 사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소식이 이 시기 지은 사를 보면 熙寧7년(1077) 蘇轍사에 次韻하여 지은「水調歌頭」(安石在東海)[31]나 元豊원년(1078) 중앙절을 맞아 쓴「千秋歲」, 또 같은 시기에 쓴「永遇樂」(明月如霜)등 보면 모두 전통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격으로 인생에 대한 感慨를 노래하고 있다.

4. 황주시기 사풍의 변화

동파의 새로운 풍격의 사 창작은 오대시안을 겪고 황주로 폄적되면서 그 정점을 이룬다. 그는 연회 자리에서 가기에게 사를 지어주기도 하고, 떠나가는 친구에게 사를 지어 작별의 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사로 읊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을 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는 다시 한 번 세상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기도 하고 영웅호걸들의 웅혼한 기상을 노래하기도 했다. 폄적 시기가 깊어지면서 佛敎와 道敎적 초월을 노래하기도 했다. 그는 황주시기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사를 통해 거침없이 표현했다. 진정 소식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의경이 확대된 것은 황주 폄적시기를 통해서이다.

소식은 사가 또 다른 형식의 시라고 여기고 의도적으로 사의 풍격을 높이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詞가 詩를 대신할 수 있다는 詞體에 대한 확신은 그의 몇 편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祭張子野文[32]」에서 '미려한 사는 완곡하고 구성짐이 무릇 시의 후예이다.(微詞宛轉,

---

28)『蘇東坡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156.

29)「水調歌頭」: 明月幾時有, 把酒問青天, 不知天上宮闕, 今夕是何年. 我欲乘風歸去, 唯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間. 轉朱閣, 低綺戶, 照無眠, 不應有恨, 何事長向別時圓. 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古難全 ;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30) 胡寅「酒邊詞序」: 眉山蘇氏, 一洗綺羅香澤之態, 擺脫綢繆婉轉之度, 使人登高望遠, 舉首高歌, 而逸懷浩氣, 超然乎塵垢之外, 於是花間為皂隸, 而柳氏為輿臺矣.

31)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32)『蘇軾文集』, p.1943.

蓋詩之裔)'고 詞가 詩의 전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형태의 詩歌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與蔡景繁[33]」에서는 '새로운 사를 보았는데, 이는 옛사람의 장단구 시이다.(頒示新詞, 此古人長短句詩也)'고 하며 사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전통 詩라고 말하고 있다. 「答陳季常三首(之二)[34]」에서도 '또 그 新詞는, 구구마다 놀랍게 빼어나서 시인의 최고 걸작이지 결코 소소한 노래가 아니다.(又惠新詞, 句句警拔, 詩人之雄, 非小詞也)'고 했다. 여기서 보듯 소식은 사를 '시의 후예(詩之裔)', '옛사람의 장단구시(古人長短句詩)', '사는 시인으로 쓴 최고의 작품이며 소소한 노래가 아님(新詞, 詩人之雄, 非小詞也)'을 표방하며 사체를 독립된 문체로 인식하고 있다. 폄적 시기 소식의 다양한 풍격의 사 창작은 소식을 대표하는 작품인 「염노교」에서 그 정점을 달했다. 이 시기는 바로 소식의 황주 폄적이 가장 암울한 정점에 달하는 때이기도 했다.

「念奴嬌·赤壁懷古」	적벽회고
大江東去,	큰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며
浪淘盡,	파도가 다 쓸어버렸네
千古風流人物.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故壘西邊,	옛적 성은 서쪽 편에 있어
人道是,	사람들 말하기를
三國周郎赤壁.	삼국 시대 때 주유의 적벽이라네
亂石崩雲,	부서진 바위는 구름을 뚫고
驚濤裂岸,	놀란 파도는 강가를 치며
捲起千堆雪.	말아 올라 천 겹의 눈덩이로 쌓이네
江山如畵,	강과 산은 한 폭의 그림 같고
一時多少豪傑.	그때의 영웅호걸은 얼마나 많았던가
遙想公瑾當年,	멀리 주유의 그때를 생각하니
小喬初嫁了,	소교가 갓 시집왔을 때
雄姿英發.	웅장한 자태에 재주를 드날렸었네
羽扇綸巾,	깃 달린 부채와 비단 두건을 쓰고
談笑間,	웃으며 얘기하던 가운데
强虜灰飛烟滅.	강한 적을 불 태워 연기로 날려버려
故國神游,	고향 땅을 혼백이 떠돌아다니며
多情應笑我,	다정한 그대는 나를 비웃네
早生華髮.	일찍 희어진 머리를
人間如夢,	인간의 삶이란 꿈과 같은걸
一樽還酹江月.	한 잔 술을 강에 뜬 달에게 권하네

처음 소식이 황주로 폄적 되어서 2년 정도 지난 元豊 5년(1082)에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측면에서 당시 소식의 심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상편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적벽

33) 『蘇軾文集』, p.1662.
34) 『蘇軾文集』, p.1569.

이라는 곳에 마주하여 역사를 회고하고 지나간 역사의 영웅들과 그들이 치렀던 적벽대전의 장면들을 회상해본다. 이 속에서 대자연과 영웅들의 웅혼한 기상과 역사를 회고한다. 이전 사에서는 보기 힘든 놀랄만한 기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주유가 조조의 군사를 재와 연기로 날려버린 통쾌한 역사적 사실과 대비되는 폄적생활이나 하고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신세를 관조하게 된다. 마음은 역사 속 영웅들과 같이 웅비를 펼치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러나 소식은 이런 좌절에 빠지지 않고 모든 희노애락을 장자의 호접지몽처럼 한바탕 꿈으로 돌리며 승화하고 있다. 이런 상반되고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당시 황주에서 폄적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의 내면의 정서였고 이 사를 통해 잘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사를 두고 왕력은 "작가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어서 술을 빌어 근심을 풀 수밖에 없다. 이 사는 소식이 정치적으로 실의하고 타격을 받았을 때 쓴 것으로 스스로 해소하려 하는데 마음속에는 많은 불평이 있고 복잡한 감회를 풀려고 해도 풀 곳이 없어서 회고를 통해 마음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35]"고 보았다. 이렇듯 소식은 기존의 사에서는 담아 낼 수 없었던 것을 황주 폄적시기 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소식이 스스로 시적 내용을 사를 통해 표현한 것은 역사 문헌 속에서도 알 수 있다. 宋代 王直方『王直方詩話』에 보면 "동파가 자주 지은 사를 晁补之와 張耒에게 보여주며 '진관과 비교하면 어떻소?' 하니 두 사람이 모두 말하길 '진관의 詩는 詞 같고, 선생님의 詞는 詩 같습니다.'"[36] 라고 했다. 즉 소식은 '시를 쓰듯 사를 지음(以詩爲詞)'으로 원래 시에 적용되던 題材와 內容, 風格, 意境 등을 詞의 범주로 끌어들여 詞風을 바꾸어 나갔다. 이를 통해 사에 더욱 많은 다양한 내용과 풍격을 담아냈다. 「滿庭芳」은 소식사의 또 다른 풍격을 보여 주는 좋은 예다.

「滿庭芳」

蝸角虛名,	달팽이 뿔에서 다투는 허망한 명예
蠅頭微利,	파리 머리만한 조그만 이익
算來著甚干忙.	계산하고 따지느라 헛되이 바쁘구나
事皆前定,	만사는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
誰弱又誰強.	누가 약하고 또 누가 강하랴?
且趁閒身未老,	한가한 몸 아직 늙지 않았을 때
須放我、	마음껏
子疏狂.	미치광이 짓 하게 두자
百年裡,	백년 인생에
渾教是醉,	날마다 취하여도
三萬六千場.	삼만 육천 번

35) 王力「念奴嬌」鑑賞: 但是作者自己的理想不能够实现, 所以只好借酒浇愁. 这首词是苏轼在政治上不得志, 受到打击以後写的, 他自我派遣, 心里有很多不平之氣, 很多感慨没有地方发泄, 於是就借懷古来发泄心中不平之氣. (『宋词鉴赏辞典』, 北京燕山出版社, 1996) 朱靖華, 『蘇軾詞新釋輯評』, 中國書店, p.746 再引用.

36) 『王直方诗话』:王直方云:"东坡尝以所作小词示無咎、文潜曰: '何如少游'? 二人皆对曰: '少游诗似词, 先生词似诗'".

思量,	생각해보면
能幾許？	얼마나 살 수 있는가?
憂愁風雨,	우수와 비바람이
一半相妨.	절반은 방해하는데
又何須,	또 무엇 때문에
抵死說短論長.	죽기 살기로 시비를 가리는가
幸對清風皓月,	다행이도 청풍명월 대하고
苔茵展、	이끼 자리 깔고
雲幕高張.	구름장막 펼쳤으니
江南好,	강남은 좋아라.
千鍾美酒,	만섬의 맛좋은 술에
一曲滿庭芳.	만정방 한곡 부르세.[37]

이 사는 元豊5년(1082) 황주에서 지어진 사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런 부질없는 세상살이를 초탈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읊었다. 대부분의 소식사가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사는 부제가 없다. 아마도 황주로 폄적되어 간 후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시기에 스스로 자신의 감회를 읊은 작품으로 보인다. 이 시기 소식은 자신의 처지를 "죄를 짓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을 닫아버리려 노력합니다. 짚신을 신고 일엽편주를 타고 산수를 방랑하며 나무꾼이나 어부와 함께하고, 종종 술 취한 사람이 밀치고 욕하지만, 사람들이 점차 저를 알아보지 못함에 스스로 기뻐합니다. 평생의 친구들이 한 글자 연락도 없고, 글을 보내도 답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신이 나와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38] "고 표현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주변의 지인들마저 자신을 저버리는 상황에서 자칫 고독하고 우울함에 빠질 수 있지만 소식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사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첫 구절의 달팽이 뿔과 같은 세상이란 표현은 장자에서 인용했다.[39] '생각해보면, 얼마나 살겠는가?(思量, 能幾許)'와 같은 표현이나 '또 무엇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시비를 가리는가?(又何須, 抵死說短論長)'라는 표현이나, 또 이런 현실의 문제를 '백년 인생에 날마다 취하여도 삼만 육천 번(百年裡, 渾教是醉, 三萬六千場)'이니 '만 섬의 맛좋은 술을 마시고, 만정방 한곡 부르세(江南好, 千鍾美酒, 一曲滿庭芳)'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장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다. 이런 달관적 풍격의 작품은 같은 시기 「臨江仙」(夜飮東坡醒復醉)에서 '이 몸이 내 것 아님을 항상 한탄하거니와 안달복달하는 생활 언제 벗어나려나?(長恨此身非我有, 何時忘卻營營)'라고 장자 「知北遊」[40]의 구절을 인용하여 노래한 것, 뒤에 다시 '작은 배를 잡아타

37) 조규백 역주, 『소동파사선』 번역참조, 문학과 지성사, p.269.

38) 「答李端叔書」: 得罪以來, 深自閉塞, 扁舟草履, 放浪山水間, 與漁樵雜處, 往往為醉人所推罵. 輒自喜漸不為人識, 平生親友, 無一字見及, 有書與之亦不答, 自幸庶幾免矣. 『蘇軾文集』(第4冊), p.1432.

39) 『莊子·雜篇·』「則陽」에 보면 "달팽이 왼쪽 뿔에 사는 촉씨(觸氏)와 오른쪽 뿔에 사는 만씨(蠻氏) 두 부족이 영토 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싸워서 죽은 시체가 수만명이 되고 패배하여 도망치는 자가를 추격하여 15일 만에 돌아오곤 했다(有國於蝸之左角者曰觸氏, 有國於蝸之右角者曰蠻氏, 時相與爭地而戰, 伏尸數萬, 逐北旬有五日而後反)"는 우화가 나온다. 이는 부질없이 좁은 세상에서 하찮은 다툼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40) 『莊子·知北遊』에 보면 "순임금이 말했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 것이란 말이오?' 승이 말했다. '그것은 천지자연이 모습을 맡긴 것입니다.'(舜曰, 吾身非吾有也, 孰有之哉? 曰, 是天地之

고 이곳을 떠나 강해에다 여생을 맡겨 보련다.(小舟從此逝, 江海寄餘生)'라고 한 것, 「十拍子」에서 『莊子·逍遙遊』의 무하(無何)[41]적 개념을 인용해 '내 주위에 생겨나는 것 모두 꿈 같으니, 취중에 보는 무하유의 고장이 바로 내고장'이라고 한 것은 모두 소식의 현실을 초탈하려는 장자적 세계관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식 이전의 다른 사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격의 작품이라 하겠다. 이런 풍격의 사 뿐만 아니라 호연한 기상을 노래한 작품들도 이 시기 지어졌다. 「수조가두」 하편을 보자.

「水調歌頭」	
-快哉亭作-	쾌재정에서
一千頃,	만경창파 넓은 강물
都鏡淨,	거울처럼 맑은데
倒碧峰.	푸른 산이 거꾸로 잠겨있네.
忽然浪起,	갑자기 파도가 일어
掀舞一葉白頭翁.	일엽편주 백발노인이 번쩍 들려 춤추네요
堪笑蘭台公子,	우습게도 난대령 송옥은
未解莊生天籟,	장자가 말한 자연의 음향을 알지 못하고서
剛道有雌雄.	억지로 바람에 암수가 있다고 우겼지.
一點浩然氣,	한 점의 호연지기
千里快哉風.	천리의 상쾌한 바람!

이 사 역시 元豊 6년(1083) 황주에서 謫居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다. 당시 소동파와 張夢得은 모두 황주에 謫居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폄적을 당하였지만 모두 실의하지 않고 비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마음은 정자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는데 소동파가 정자의 이름을 '快哉亭'이라 붙여주고 낙성식 때 이 정자에 올라 자신의 감회를 표현했다. 쾌재정은 송옥 「風賦」의 한 구절인 '상쾌하구나! 이 바람이여(快哉! 此風)' 라는 것에서 따온 것이다. 송옥은 「風賦」에서 바람을 '대왕의 숫 바람(大王之雄風)'과 '서민의 암 바람(庶民之雌風)'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소식은 송옥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莊子·齊物論』의 말을 인용해 바람은 자연의 신비한 음악(天籟)이라고 했다. 소동파는 송옥을 비웃으며 상쾌한 바람을 가슴에 맞으면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다고 표현했다. 蘇轍도 「黃州快哉亭記」를 통해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그 마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면, 장차 어디를 가도 근심이 아니겠는가. 그 마음으로 하여금 아무 걱정도 없이 물욕으로 성품을 해치지 않게 한다면, 장차 어디를 가도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제 장몽득은 귀향살이를 근심으로 여기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여가가 생기면 스스로 산수 자연과 벗하니, 이는 마음이 보통사람을 초월한 부분이 있기 때

委形也.)"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자연의 일부임 말하고 있다.

41) 『莊子·逍遙遊』에 "왜 아무것도 없는 고장에서 그것을 심어 놓고 광막한 들판에서 하는 일 없이 그 주위를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노닐다가 그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으시오.(何不樹之於無何有之鄉, 廣莫之野, 彷徨乎無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라고 했다. 無何有란 아무것도 없이 '비움'을 의미한다.

문이었다.[42]"고 快哉亭을 세우게 된 정신적 배경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신에 맞추어 지은 작품이므로 「수조가두」는 역경 속에서도 泰然自若하고 더 나아가 호연지기를 품는 문인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경물의 묘사와 서정성 거기에 의론적 내용이 융합되어 새로운 사의 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劉熙載는 이 사를 두고 『藝概·詩概』에서 "그 정교하고 세밀하면서도 초월적 광달함이 가슴을 후련하게 하여 호걸들을 쓰러지게 한다(其精微超曠, 真足以開拓心胸, 推倒豪傑)"라고 그 호방한 풍격을 극찬했다. 시를 통해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할 기상을 소식은 사를 통해 이렇듯 멋지게 표현했다.

5. 결론

晩唐五代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풍격의 사가 소식 한 사람에 의해 바뀌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새로운 사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시 詞壇의 詞人들이 새로운 사풍을 형성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풍격의 사를 지속적으로 창작하여 한다. 다시 이런 조류가 당시 文壇의 공감을 얻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아울러 후대에 지속적으로 이런 풍격을 따르는 작가와 작품이 나와야 한다. 북송시대 새로운 사풍의 출현은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식 이후 많은 사인들이 새로운 풍격의 사를 쓰기 시작했다.[43] 따라서 소식은 새로운 풍격의 사를 탄생시킨 先河가 되었다. 본 논문은 소식이 어떤 계기로 새로운 사를 창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역사적 문헌 자료와 사의 연도별 내용 변화를 고찰해 볼 때 소식의 사풍의 변화는 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시로 인한 필화사건으로 소식은 폄적을 당하였기에 더는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롭게 자신의 胸襟를 풀 문학적 도구가 필요했는데 사가 가장 적합한 체제였다. 소식은 사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도구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는 소식의 폄적 전후사의 내용과 풍격을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난다. 통계로 볼 때 소식이 좌천되어 밀주로 가기 전까지의 50여수의 사들은 모두 완약한 풍격의 사들이다. 한 수의 예외도 없다. 그러나 오대시안으로 황주로 폄적되면서 새로운 풍격의 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사 작품들이 이 시기에 나왔다.[44] 동시에 이 시기 시의 창작은 가장 미미했다. 莫礪鋒 는 그의 논문에서 "소식사의 창작과정에서 두 흥성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황주시기를 또 하나의 최고봉이라 할만하다. 분명하게도 이 시기는 소식시의 창작과정과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소식이 '시를 쓰듯

---

42) 蘇轍 「黃州快哉亭記」: 士生於世, 使其中不自得, 將何往而非病, 使其中坦然不以物傷性, 將何適而非快. 今張君不以謫爲患, 竊會計之餘功, 而自放山水之間, 此其中宜有以過人者.

43) 당시 소식은 문단에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소식과 정치적 뜻을 같이하던 소식문하의 황정견, 조보지, 장뢰, 진관 같은 소문사학사도 소식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풍격의 사를 쓰기 시작했고 이는 후대 신기질과 주돈유와 같은 호방파 사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拙稿, 「蘇門四學士 貶謫前後詞 比較」, 『中國學』, 제61집, p.73을 참고 바란다.

44) 龍榆生 선생은 「東坡樂府綜論」에서 "동파의 사를 읽으려면 마땅히 40세에서 50세 사이(밀주와 황주 폄적 시기) 의 여러 작품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读东坡词, 自當以四十至五十间诸作品为轨则已)"고 했다. 『龍榆生詞學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97, p.262.

사를 쓴다(以詩爲詞)'는 명제를 고찰 할 때 이것은 경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45)]"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 소식은 폄적시기 시를 대신할 문학적 도구로 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애됨이 없는 소식의 입장에서 볼 때 사는 시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내는 좋은 문학적 형식이었을 것이다. 즉 동파를 통해 처음으로 사는 艶科의 遊戱文學이라는 인식을 벗어 버리고 시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를 쓰듯 사를 쓰는 '以詩爲詞'의 기풍을 마련했다. 이후 소식의 주창에 힘입어 소문사학사와 후대의 신기질과 같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내용과 제재로 호방한 풍격의 사를 창작함으로써 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식이 오대시안으로 인한 폄적이 새로운 사를 쓰게 했고 이 새로운 풍격의 사는 송대문학을 대표하는 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참고문헌】

唐圭璋,『全宋詞』, 中華書局, 1989.
_____,『詞話叢編』, 中華書局, 1993.
孔凡禮 點校,『蘇軾文集』, 中華書局, 1996.
鄒同慶·王宗堂,『蘇軾詞編年校注』, 中華書局, 2007.
朱靖華 外3人,『蘇軾詞新釋輯評』, 中國書店, 2010.
류종목 역해,『蘇東坡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曹圭百 譯註,『蘇東坡詞選』, 문학과 지성사, 2007.
马兴荣·祝振玉,『山谷词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013.
陶爾夫 諸葛憶兵,『北宋詞史』,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喻朝刚,『宋词观止』, 大众文艺出版社, 2009.
王國維,『人间词话』, 成都古籍出版社, 1996.
唐圭璋 等,『唐宋詞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姜钧主 编,『宋词大鉴赏』, 外文出版社, 2012.
張　英,『唐宋貶謫詞研究』, 蘇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彭文良,『蘇軾詩詞比較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夏向軍,『北宋贬滴词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田　寶,「贬滴文学與超越意識」,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王兆鵬·徐三橋,「蘇軾貶居黃州期間詞多詩少探因」,『湖北大學學報』, 1996.
莫礪鋒,「從蘇詞蘇詩之異同看蘇軾"以詩為詞"」,『中國文化研究』, 2002.
鄭台業,「蘇門四學士 貶謫前後詞 比較」,『中國學』, 제61집, 2017.

45) 蘇詞的創作過程中有兩個高潮時期, 其中又以黃州時期堪稱巔峰. 顯然, 這與蘇詩的創作過程是不相重合的. 當我們考察蘇軾"以詩為詞"這個命題時, 這是一個不容忽視的事實.「從蘇詞蘇詩之異同看蘇軾"以詩為詞"」,『中國文化研究』, 2002, p.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蘇軾, 貶謫, 以詩爲詞, 烏臺詩案, 豪放, 詞風變化
	영문	Su Shi, Exile, Transformation, Prose Style, vigorous style

Su Shi's Exile and the Transformation of Prose Style in the Age of Song

Jung, Tae-Up

The style of prose goes through a major change in the age of Su Shi. The tender style of prose that was maintained since the latter years of the Tang Dynasty transformed into a vigorous and fresh style. The reason to this is related to Su Shi's political situation. Being a political victim of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he continued to express his emotions through prose instead of poem. This incident became the origin of evaluating prose "as if writing poem". The literary noblemen were not so much interested in prose at his time, so Su Shi chose prose to illustrate complicated inner thoughts related to his political exile. His style was vigorous, clear, and transcendent. In conclusion, Su Shi's exile triggered him to develop a different prose style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frail style, and this trend influenced the literary circles that created variation in the prose style of the Song age.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태업 / 鄭台業 / Jung, Tae-Up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 중국학부		
	Em@il	pufs1@bufs.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09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